



DAOL Daily Morning Brief

DAOL 다올투자증권

02 Sep. 2026

해외시장 요약

▶ 미국증시: Dow (-0.79%), S&P500 (-0.71%), Nasdaq (-1.03%)

- 미국증시, 미·이란 충돌 격화에 따른 유가·국채금리 급등이 부담으로 작용한 가운데, 9월 금리 인상 우려까지 부각되며 3대 지수 하락 마감
- 미 중부사령부, 호르무즈 해협 인근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에 대한 공습을 실시
- 바 연준 이사, 인플레이션이 현재 수준으로 유지될 경우 금리인상을 지지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힘
- 팔로알토, 예상치 상회하는 실적·가이던스 공개에도 최근 급등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 출회되며 시간외 거래에서 -2.2% 하락 중
- 델 테크놀로지, AI 서버매출 급증과 수주잔고 확대에 힘입어 예상치 상회한 실적 발표 및 가이던스 대폭 상향, 시간외 거래에서 +6.4% 상승 중
- 모더나, 경쟁사 바이오엔테크의 암 백신 임상 실패에 자사 임상 성공 부각 및 독점력 강화 기대로 +9.8% 상승
- S&P500, 에너지 +1.5%, 유틸리티 +0.8% vs 재량소비재 -1.9%, 산업 -1.4%

▶ 미국국채: 2yr 4.4%(+5.8bp), 10yr 4.798%(+4.8bp)

- 미국채금리, 글로벌 채권 매도세가 이어진 가운데 미·이란 충돌 격화에 따른 유가 급등 및 9월 금리 인상 우려로 상승. 미국 ISM 제조업 PMI는 54.6으로 예상치(55.2)를 하회했으나 금리 영향은 제한적. 미 10년 물 금리는 한때 4.80% 터치

▶ FX: JPY 160.18(+0.28%), EUR 1.159(-0.22%), Dollar 99.68(+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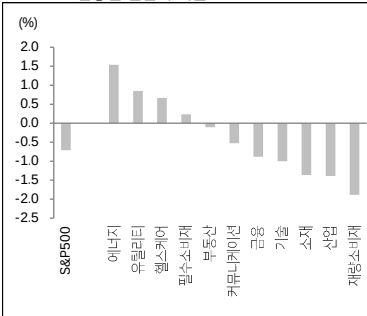
- 달러 인덱스, 국제유가 상승에 연동되며 상승

▶ Commodity: WTI \$90.22(+5.20%), Brent \$94.65(+4.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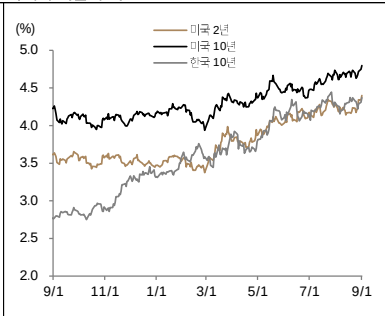
- WTI, 지난 주말 재개된 미·이란 교전이 격화되며 상승

발표일자	주요 지표	단위	예상치	실제치	이전치
9월 1일	한국 8월 수출	%yoy	63.0	68.7	53.0
	미국 8월 ISM 제조업 지수	Index	55.2	54.6	55.6
9월 2일	한국 8월 소비자물가지수	%yoy	3.2	-	2.8
	미국 8월 ADP 고용 변동	k	47.0	-	4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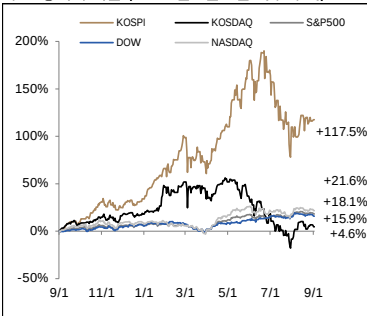
S&P500 업종별 일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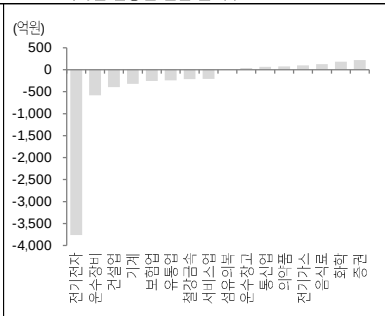
국채 수익률 추이



주요 증시 수익률 (2025년 9월 1일 이후 누적)



KOSPI 외국인 업종별 일간 순매수



Liquidity (잔액, 증감, 심역원)

구분	잔액	1D	1W	1M	3M	1Y	YTD
고객예탁금*	99,704	-109	-3,309	-4,954	-31,881	32,211	11,875
미수금*	932	2	-992	-793	-417	36	-28
신용잔고*	33,253	-85	624	1,100	-4,770	11,168	5,966
MMF*	257,160	-2,893	-3,406	1,046	3,578	25,302	63,719
채권형*	212,854	-68	-731	-716	-4,349	-8,982	-887
주식형(국내)*	201,139	430	4,423	36,631	-32,289	122,092	92,730
주식형(해외)*	135,856	-1,346	-525	6,505	-4,943	58,907	36,503
외국인		-492	-1,951	-10,667	-66,358	-168,795	-169,607
개인		-540	-4,425	2,695	50,081	89,493	107,240
기관		-629	-1,660	-5,693	1,004	48,643	33,345
투신		14	-642	-1,175	-1,776	-6,629	-5,171
연기금		-15	-250	-676	-1,987	-9,552	-8,413
금융투자		-634	14	-2,779	6,110	84,445	61,767
보험		-23	44	301	151	-10,340	-7,458
프로그래밍 차익		-24	7	-314	416	5,603	3,603
프로그래밍 비차익		-296	-3,344	-18,964	-58,716	-134,740	-130,096

*는 D-2 거래일 기준, 펀드는 설정액 및 ETF 제외 기준, 매매추이는 KOSPI 기준

	Index	1D(%)	1W(%)	1M(%)	3M(%)	1Y(%)	YTD(%)
KOSPI	6,835.8	0.2	1.4	3.6	(22.2)	116.9	62.2
KOSDAQ	821.3	(1.6)	(0.7)	14.1	(21.8)	4.2	-11.3
DOW	52,766.9	(0.8)	(1.5)	(0.8)	2.8	15.9	9.8
S&P500	7,631.5	(0.7)	(0.6)	0.4	0.3	18.1	11.5
NASDAQ	26,099.8	(1.0)	(0.2)	0.7	(3.7)	21.6	12.3
유로 STOXX 50	6,369.0	(0.8)	(1.3)	(0.9)	4.4	19.8	9.9
영국_FTSE100	10,789.3	(0.3)	(0.6)	(0.7)	4.4	18.3	8.6
일본_NIKKEI225	66,215.3	(0.1)	0.5	2.9	(0.8)	52.1	31.5
대만_TWSE	46,948.7	1.8	3.9	8.2	3.1	91.8	62.1
홍콩_HS	25,329.7	(0.9)	(0.7)	(2.6)	(2.7)	0.9	(1.2)
중국_Shanghai	3,979.9	(0.2)	2.3	4.5	(2.5)	6.8	0.3
인도_SENSEX30	76,944.3	(0.0)	(0.9)	(2.2)	3.5	(5.7)	(9.7)
브라질_BOVESPA	179,722.5	1.3	2.9	1.0	5.5	27.4	11.5
KOSPI Sector	Index	1D(%)	1W(%)	1M(%)	3M(%)	1Y(%)	YTD(%)
에너지	8,119.8	3.3	4.8	17.6	1.8	105.1	70.4
화학	4,452.3	(1.1)	5.8	17.3	(19.4)	14.0	(0.5)
비철,목재 등	6,621.7	(1.7)	(9.5)	23.8	(7.4)	26.5	(6.4)
철강	2,347.3	0.8	2.4	10.1	(17.1)	8.4	8.1
건설,건축관련	2,336.7	(2.6)	0.1	19.3	(8.9)	55.8	53.7
기계	11,243.3	(1.4)	3.8	17.0	(24.7)	61.9	25.5
조선	7,690.8	0.4	(0.2)	(0.4)	(24.5)	0.7	(11.8)
상사,자본재	5,791.7	(1.0)	1.1	9.6	(15.4)	131.1	66.8
운송	1,934.2	0.1	(0.3)	6.7	5.0	5.1	9.7
자동차	14,059.8	(0.7)	(5.0)	0.2	(37.4)	49.3	18.6
화장품,의류,완구	6,412.3	(2.7)	(0.8)	14.7	11.9	25.3	30.8
호텔,레저서비스	1,643.8	0.6	2.9	6.0	(11.2)	(26.7)	(28.9)
미디어,교육	500.5	(0.4)	2.5	4.0	(11.5)	(32.0)	(36.5)
소매(유통)	2,542.1	2.9	6.4	0.2	(11.0)	38.6	26.1
필수소비재	7,716.7	(1.3)	1.0	4.9	3.2	13.7	13.3
건강관리	9,718.2	(0.3)	(1.1)	5.8	1.5	12.6	(8.2)
은행	3,515.4	0.8	4.2	5.5	14.7	46.0	31.3
증권	2,665.6	0.7	0.4	(2.5)	(21.8)	34.3	18.7
보험	16,661.7	2.3	6.1	7.6	(3.2)	80.9	60.4
소프트웨어	6,555.7	(0.2)	0.6	4.8	(23.5)	(9.2)	(8.5)
IT하드웨어	4,369.9	(2.2)	4.2	23.7	(33.9)	392.5	218.9
반도체	48,569.5	0.8	1.2	(0.7)	(26.6)	354.5	133.8
IT가전	3,155.9	(3.1)	6.5	31.2	(27.4)	87.3	70.4
디스플레이	569.8	(0.8)	(1.0)	4.3	(38.1)	(19.3)	(19.2)
통신서비스	483.1	0.8	(1.4)	9.9	(9.5)	25.5	31.5
유틸리티	1,077.0	0.3	(0.2)	(0.4)	(12.4)	(7.2)	(20.7)
S&P500 Sector	Index	1D(%)	1W(%)	1M(%)	3M(%)	1Y(%)	YTD(%)
기술	6,889.7	(1.0)	1.7	3.4	(5.1)	31.6	21.2
헬스케어	1,997.5	0.7	(2.1)	5.7	17.3	25.0	10.6
금융	949.9	(0.9)	(1.9)	(0.4)	11.2	6.0	4.2
재량소비재	1,884.4	(1.9)	(2.6)	(4.5)	(2.7)	1.3	(2.3)
커뮤니케이션	448.6	(0.5)	(2.1)	(5.8)	(5.1)	12.0	(0.8)
산업	1,459.3	(1.4)	(3.3)	(5.8)	(0.8)	13.6	11.1
필수소비재	935.7	0.2	(1.5)	(0.3)	3.0	5.5	8.2
에너지	986.7	1.5	4.2	9.5	12.2	43.8	43.6
유틸리티	430.5	0.8	(1.8)	(4.4)	(3.1)	1.0	(0.8)
부동산	280.6	(0.1)	(2.8)	(2.4)	1.9	5.8	10.0
소매	654.7	(1.4)	(3.2)	3.1	1.9	12.1	14.0
Commodity	Inx/Price	1D(%)	1W(%)	1M(%)	3M(%)	1Y(%)	YTD(%)
Reuters CRB	417.3	1.6	4.4	9.8	7.3	37.1	39.7
BDI	3,186	2.5	12.1	19.2	(0.6)	55.7	69.7
WTI(\$/Barrel)	90.2	5.2	9.5	12.3	(3.8)	37.6	57.1
Brent(\$/Barrel)	87.8	(0.8)	(0.8)	4.9	(8.5)	27.0	44.4
Dubai(\$/Barrel)	84.9	1.4	4.4	14.2	(2.9)	22.1	39.0
금(\$/oz.)	4,598.2	(0.9)	(0.9)	14.0	2.4	29.1	5.9
은(\$/oz.)	64.6	(2.4)	(2.4)	1.8	(5.8)	56.0	(16.7)
구리(\$/ton)	14,405.6	(0.3)	0.3	4.1	4.4	45.4	15.7
알루미늄(\$/ton)	3,221.5	0.3	0.5	1.3	(14.1)	23.5	11.0
천연가스(\$/MMBtu)	2.90	(1.1)	4.8	4.4	(8.3)	(3.5)	(21.2)
FX	Price	1D(%)	1W(%)	1M(%)	3M(%)	1Y(%)	YTD(%)
달러 인덱스	99.7	0.3	0.8	(0.2)	0.3	1.9	1.4
원/달러	1,384.8	0.1	(0.3)	(4.7)	(8.0)	(0.1)	(4.1)
원/100엔	857.6	0.2	(1.2)	(5.7)	(10.5)	(9.1)	(7.2)
위안/달러	6.72	0.1	0.0	(0.5)	(0.8)	(6.4)	(4.5)
달러/유로	1.16	(0.2)	(0.7)	0.7	(0.2)	(0.9)	(1.3)
엔/달러	160.2	0.3	0.6	1.9	0.1	8.6	2.2
Bitcoin(\$)	78,444.8	0.3	1.2	21.1	28.9	(8.7)	(10.5)
Bond & Credit	Price	1D(bp)	1W(bp)	1M(bp)	3M(bp)	1Y(bp)	YTD(bp)
국고채_3년(%)	3.88	3.9	5.3	11.9	8.9	144.2	92.8
국고채_10년(%)	4.37	6.0	5.2	10.8	19.1	152.3	98.5
미국채_2y(%)	4.40	5.8	22.6	16.3	35.7	85.8	92.7
미국채_10y(%)	4.80	4.8	16.9	12.3	32.5	77.8	63.1
독일 국채_10y(%)	3.34	2.0	14.3	19.2	32.2	69.3	48.9
북미 투기등급채(bp)	115.4	1.5	(1.1)	(1.7)	5.3	(10.1)	2.8
북미 투기등급채(bp)	302.2	1.4	(13.3)	(12.6)	(15.5)	(35.3)	(38.4)

*데이터 일자자는 D-1 거래일 기준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 판단을 돕기 위해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본 자료는 조사분석 담당자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를 토대로 작성한 것이나, 제공되는 정보의 완전성이나 정확성을 당사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모든 투자 의사결정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하시기 바라며,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어떠한 법적 분쟁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으며,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배포, 복제, 인용, 변형할 수 없습니다.



IT

IT

삼성전자, 3D 적층 메모리 선점 나선다... 'CUBE' 전략 공개

<https://buly.kr/2fgQ47A>

'세미콘 타이완 2026'에서 칩의 집적도 및 전력효율성을 높이는 수직(3D) 적층 기술력을 활용하는 큐브 전략 발표

삼성전기, AI 서버용 MLCC 1.1조 공급계약...역대 최대 규모

<https://buly.kr/C0CY30L>

2027년 1년간 공급... "점유율 40% 기반 고부가 시장 선점 가속"

산업재

조선/기계/방산

폴란드가 원거리 공급망 끊고 자국산 무기 4배 늘린 이유

<https://buly.kr/FhQSpnl>

유럽 최대 규모의 육군 건설을 추진 중인 폴란드가 해외 원거리 무기 의존 탈피를 공식 선언

건설/부동산

비거주 주택 중부세 공제... 9억→12억으로 '원상 복구'

<https://buly.kr/EI6Oz67>

정부, 비거주 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낮추려던 계획을 철회하고 현행 12억원 유지

철강

고려아연 "영풍·MBK, 대법원 판단 왜곡...현 경영체제 영향 없어"

<https://buly.kr/NmXUqM>

려아연이 지난해 1월 임시주주총회와 관련한 대법원의 최근 판단을 두고 영풍·MBK파트너스가 의미를 왜곡·확대하고 있다고 반박

소비재

자동차/모빌리티

중국차 공세에 각자도생 접는 완성차...소프트웨어 합종연횡 가속

<https://buly.kr/2fgQ0uF>

개발비를 나누고 출시 속도를 높이기 위해 경쟁사나 빅테크와 손잡는 '소프트웨어 합종연횡'이 확산하는 모습

기아, 8월 26만6675대 판매...전년비 5% ↑

<https://buly.kr/8lydP1J>

차종별 실적은 스포티지가 4만6239대로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판매됐고 셀토스가 3만5698대, 쏘렌토가 1만8404대

화장품

신세계면세점, 업계 최초 아모레퍼시픽 '뷰티포인트' 연동

<https://buly.kr/D3h5tbG>

신세계면세점이 아모레퍼시픽과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내 면세업계 최초로 브랜드사의 자체 멤버십 포인트를 온라인몰에 연동

의료기기

슈링크홈, 신제품 잼포어 샷 레디영약국 입점... 오프라인 점점 확대

<https://buly.kr/FAgBfPO>

클래시스가 전개하는 홈 뷰티 디바이스 브랜드 슈링크홈이 신제품 '잼포어 샷'을 앞세워 레디영약국에 입점하며 오프라인 유통 채널을 확대

제약/바이오

릴리, 미 메리다 최대 3.9조원 인수... '자가항체 제거' 신규 플랫폼 확보

<https://buly.kr/5UKVvnm>

릴리, 최대 28.8억달러에 메리다를 인수해 병원성 자가항체만 선택적으로 분해하는 신규 플랫폼과 MER511 등 자가면역·알레르기 파이프라인을 확보.

울릭스, 지난해 발행한 CPS 대규모 일괄 전환...수급 불확실성 대폭 완화

<https://buly.kr/5JPkx02>

울릭스, 지난해 발행 CPS 중 현재 전환 가능한 물량 165.8만주를 일괄 보통주 전환해 잠재 오버행의 수급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

음식료

돼지바·수박바가 왜 인도에서 흥하죠?...아이스크림마저 K열풍

<https://buly.kr/4FvD47g>

롯데월드푸드는 인도에서 돼지바 흥행과 푸네 신공장 가동으로 상반기 빙과 매출이 24% 증가, 빙그레는 메로나·붕어싸만코 인기 등 K-아이스크림의 해외 성장세 확대

서비스

인터넷/게임/레저

네이버, 사우디 공공행정DX 맡는다

<https://buly.kr/C0CY0cs>

네이버 이노베이션이 사우디 부동산 등기기관 'RER'과 부동산·지방행정 분야의 디지털 전환(DX)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

넷마블 '나혼렐' 중 외자판호 획득...K-게임 3종 포함

<https://buly.kr/58Uzkz1>

넷마블의 '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 등 국내 게임 3종이 중국 외자판호 획득

운송

항공권 가격 9월부터 일제히 인상... 장거리 노선 왕복 20만원 더 뛴다

<https://buly.kr/4Qpxp5A>

편도 노선별로 4만8000원부터 35만4000원까지 부과하는데, 이는 지난달 3만5200원에서 25만9200원 수준보다 크게 오른 것

금융

5대銀 가계대출 782조, 석달째 3조 넘게 늘어...총량 여력 1.3조

<https://buly.kr/2UldGC6>

5대 은행 8월 말 가계대출 잔액 782.1조원으로 전월 대비 3.3조원 증가하며 석 달 연속 3조원대 이상 확대

2금융권 가계대출 한도 늘어난다...당국, 추가 여력 배분 착수

<https://buly.kr/2qb9DqR>

8·13 대책으로 관리목표가 1.5%에서 3%로 상향되며 2금융권 추가 여력은 2~4조원 예상